

주간 규제 정보

Vol. 411

2022. 08. 15 ~ 2022. 08. 21



목차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 1.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3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 2.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4
- 3. 중국, 식품접촉용 소재에 적용되는 일반 표준 개정 고시 5
- 4. 유럽화학물질청, 등록 톤수 범위 하향조정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6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5. 캐나다 유아용 젓병 시장동향 7
- 6. 미국 가정용 가구 시장동향 11
- 7. 독일 자전거 시장 동향 16
- 8.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 동향 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1.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 인공눈물·마스크 등 생활 밀착형, 비타민·유산균 등 추석 수요 품목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8월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 합니다.

* ▲(의약품)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 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 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입니다.

-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 *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제품명’ 또는 ‘성분명’ 입력

-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오정원	(043-719-2651)
		담당자	사무관	이유빈	(043-719-2656)
<바이오>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은주	(043-719-3651)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3-719-3664)
<한약>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호연	(043-719-3351)
		담당자	사무관	최정현	(043-719-3354)
<의약외품>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공수	(043-719-3701)
		담당자	사무관	강원구	(043-719-3708)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2.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2년 7월 7일,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제31조의2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안 제31조의2제2항, 별표 7의4)

구 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 출 액 의 2/100	매 출 액 의 3/100	매 출 액 의 5/100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m/oglMpp/68954?opYn=Y&otGiOrgCd=148000&isOpYn=Y&edYdFnt=2022.08.16.&stYdFnt=2022.02.01.&btnType=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3. 중국, 식품접촉용 소재에 적용되는 일반 표준 개정 고시

7월 28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식품 접촉용 종이와 판지에 대한 개정된 기준을 포함하는 국가 표준인 식품접촉용 소재에 대한 일반기준(GB 4806.8-2022)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표준인 GB 4806.8-2016을 대체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 모든 식품접촉용 소재등에 적용됩니다.

* China's National Health Commission

개정된 표준의 범위는 기존 표준과 동일하게 왁스 종이, 실리콘 오일 종이 및 펄프 성형 제품을 포함하여 종이 및 판지 재료 및 기타 식품으로 전이되는 제품을 포함하며 아래 항목들이 개정되었습니다.

- 용어 및 정의의 수정
- 원자재 요구 사항

- 감각(Sensory) 요구 사항
- 물리적 및 화학적 지표의 수정 및 추가
- 미생물 시험 방법의 수정
- 신규 기술 요구 사항
- 화학적 이동에 필요한 검출 방법

특히, 개정된 표준에서는 화학적 전이와 관련하여 부속서 A(물 추출 시험 용액의 준비 방법) 및 부속서 B(전이 시험 시 사용되는 여과지의 전처리 방법)가 수정되었고 신규 도입된 부속서 C는 신규 규정에 따라 준비된 종이 및 판지 샘플에서 1,3-디클로로-2-프로판올 및 3-클로로-1,2-프로판디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새로운 표준의 일환으로 NHC는 식품 접촉용 대나무, 목재 및 그 제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인 GB 4806.12-2022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오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되며 식품 접촉 물질(FCM)과 대나무, 목재 및 연목으로 만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재에 포함된 중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전이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hc.gov.cn/sps/s7891/202207/d30f4827b27148779c93f3090fc2afc3.s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4. 유럽화학물질청, 등록 톤수 범위 하향조정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지난 7월 2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CHA가 결정 초안을 전달한 후 등록에서 톤수 범위를 낮추는 회사는 물질의 양을 증명해야 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에 따라 등록자가 문서 평가 결정 초안을 받은 후 톤수 범위 변경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ECHA에 전달하고 제출 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톤수 범위를 낮추는 경우 전년도에 수입 또는 제조된 물질의 양에 관한 증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채택된 서류 평가 결정이 등록자에게 전달되면 등록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톤수 범위 변경 또는 제조 중단에 관계없이 결정에 요약된 모든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de/-/tonnage-band-changes-may-now-be-taken-into-account-during-dossier-evaluation-proces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5. 캐나다 유아용 젓병 시장동향

-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중산층 인구의 확대로 육아 용품 소비 증가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 주춤 이후 수요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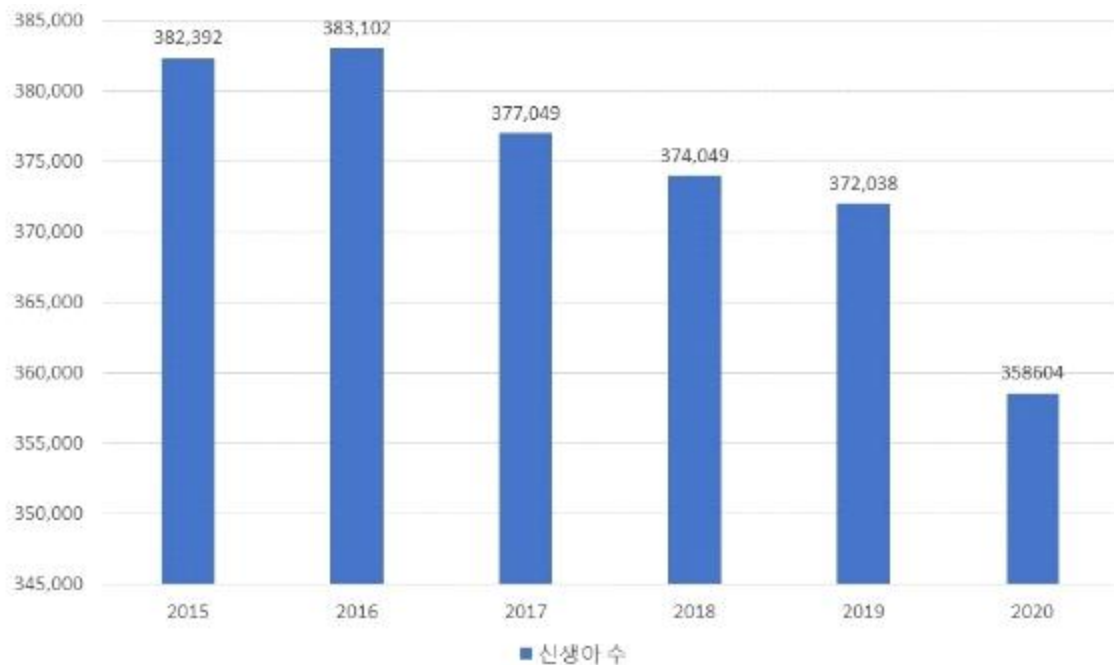
상품명 및 HS 코드

유아용 젓병은 HS코드 3923.30(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플라스틱 젓병을 포함한다.

시장 규모 및 현황

시장 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은 2026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젓병 시장의 성장 규모를 21억6783만 캐나다 달러(약 17억 달러), 2022~2026년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성장률은 4.3%로 예측했다. 캐나다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도시화와 중산층 인구의 확대,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일 하는 여성의 증가에 따라 더 나은 품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캐나다 연도별 신생아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Statista]

수입동향 및 수입규모

유아용 젓병을 포함한 HS코드 3923.30의 2021년 캐나다의 총 수입 규모는 약 6억4071만 캐나다 달러이다.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647만 4,000 캐나다 달러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차지한다.

<2021년 캐나다 유아용 젓병 수입 동향>
(단위: C\$ 천)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1	미국	464,766	502,315	490,835	508,948	502,647
2	중국	87,573	103,103	112,984	91,423	75,757
3	오스트리아	9,032	10,542	10,516	13,180	13,845
4	멕시코	9,900	9,656	14,137	8,187	8,474
5	한국	7,574	7,477	9,147	7,018	6,474

주: HS 코드 3923.30

[자료: 캐나다 통계청]

경쟁동향

유아용 젖병은 소모품으로 평균 교체 주기는 6개월이다. 더불어 제품 특성상 젖꼭지의 모양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브랜드의 젖병을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젖병을 고를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비스페놀A(BPA)와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안정성, 세척의 용이함, 그립감, 감각적인 디자인, 배앓이 방지(Anti-colic) 기능, 다른 젖병들과의 호환성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주요 젖병 브랜드>

브랜드	홈페이지	제품 사진
Dr. Brown	www.drbrownsbaby.com	
Philips Avent	www.philips.ca	

Medela	www.medelastore.ca	
Tommee Tippee	www.tommeetippee.ca	

주: 일부 링크는 한국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자료: 각 브랜드 공식 누리집 및 판매처]

유아 용품 판매처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주요 마케팅 방법 중 하나는 ‘레지스트리(registry)’이다. 레지스트리는 판매자에게는 향후 홍보, 타겟팅 등에 사용할 자사 데이터를 얻거나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사이트에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제품을 리스트에 담을 수 있고 Welcome Gift라는 가입 선물을 통해 샘플, 무료 상품, 할인 쿠폰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 예 중 하나로 북미 최대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 Amazon Brand Registry)’가 있다.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베이비 레지스트리 가입을 허용한다. 이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은 아마존 뿐만 아니라 월마트(Walmart), 팜퍼스(Pampers), 바이바이베이비(Buy Buy Baby) 등 유아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입은 무료이며 소비자들은 가입 선물(Welcome Gift)의 구성, 할인율, 사은품 혜택 등을 보고 선택한다.

유통구조

캐나다의 유아용 젖병은 슈퍼마켓, 식료품점, 유아 용품 전문 상점, 약국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판매처도 다양해졌다. 캐나다의 유아용품 판매처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 상점 또한 활발하다.

<캐나다 내 주요 유아 용품 전문 매장>

판매처	홈페이지	로고
BABIES R US	https://www.babiesrus.ca	
snugglebugzbaby	https://www.snugglebugz.ca	
buy buy BABY	https://www.buybuybaby.com	
westcoastkids	https://www.westcoastkids.ca	

[자료: 각 판매처 누리집]

관세율 및 인증

해당 HS code 3923.30는 한-캐 자유무역협정(CK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는 유아용품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유아 용품 수출 시에는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s Safety Act, CCPSA)을 준수해야 한다. 그 내용 중 하나로 비스페놀 A(BPA)가 함유된 폴리카보네이트(PC) 젓병을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폴리카보네이트에 첨가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는 고온이나 특정 화학 물질에 반응하면 녹아 나오는데 신체에 노출이 되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인체에 유해하며, 특히 영유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부작용으로는 생식 기능의 이상, 면역력 저해, 전립선암, 유방암 등이 있다. 유아용 플라스틱 젓병의 소재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페닐설폰(PPSU),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다양한데 젓병의 종류나 재질에 따라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다.

*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s Safety Act, CCPSA)링크: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justice.gc.ca\)](http://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justice.gc.ca))

이와 더불어 포장·라벨링에 대한 규정은 소비자 포장 및 라벨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명시하고있다. 필수 표기 항목으로는 식별 가능한 제품의 이름, 제품 수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이다. 이밖에 표면 코팅 재질 규제(Surface Coating Materials Regulations), 납, 카드뮴 성분 함유 및 파손 위험 등에 대한 라벨링 표기 등이 있다.

* 소비자 포장 및 라벨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 링크:
<https://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1248.html>

시사점 및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유아 용품 시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급속한 도시화와 여성 경제 인구 증가로 유아 용품 시장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측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캠페인 광고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유아 식품, 용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유아 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 예측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유아 용품 판매처에서 한국산 짝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교적 입점이 쉬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대형 전문 매장 입점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Beauty, K-Food 등 한국(Korea)의 “K”가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으면서 품질은 기본, 안정성, 실용성, 디자인 등 구매 전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을 살린 브랜드 진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Euromonitor, 리서치앤마켓,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 캐나다 연방정부 누리집,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6. 미국 가정용 가구 시장동향

- 주택 시장 활성화로 가구 수요 급증
-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 활성화

상품명 및 HS Code

가정용 가구의 HS Code는 940190 이다. (940190은 가구 중 의자에 해당하는 HS 코드이나,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가정용 가구 전반에 대해 다룬다)

시장규모 및 동향

2021년 미국 가정용 가구의 시장규모는 1271억 9500만 달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3%씩 성장했으며, 2021년에만 7.8%가 성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좁은 도시에서 교외로 이사 가는 가구가 많아지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시장의 규모도 성장했다. 신규 주택 착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 가정용 가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가구 시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5%씩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매년 1.4%씩 성장해 2027년 138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가정용 가구 시장 규모와 전망>
(단위: US\$ 백만)

연도	시장규모
2016	108,397
2017	111,033
2018	113,736
2019	116,184
2020	117,942
2021	127,195
2022	129,053
2023	131,735
2024	132,812
2025	134,445
2026	136,182
2027	138,783

[자료: IBIS World(The Retail Market for Home Furniture & Bedding in the US, 2021년 4월)]

팬데믹으로 인해 이커머스는 가구 시장까지 흡수했다. 가구는 전통적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으나,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미국 가구 기업 이튼 앨런(Ethan Allen) 캐스와리(Kathwari)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준비해 온 온라인 렌더링 서비스가 팬데믹 기간에 효과를 누렸다. 팬데믹 초기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 250개 매장을 닫았으나, 온라인으로 맞춤 가구를 주문하고 렌더링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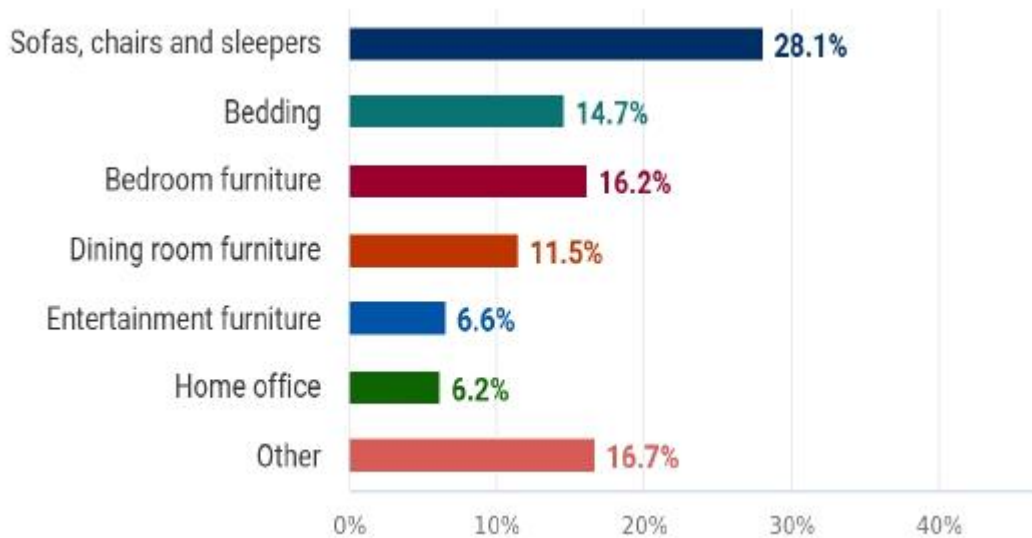
<이튼 앨런 렌더링 서비스>



[자료: 이튼 앨런 홈페이지]

2021년 가정용 가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소파와 의자(침대로 변형 가능한 것 포함)류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이외에 침실용 가구가 16.2%, 침구류가 14.7%, 다이닝용 가구가 11.5%를 차지했다.

<미국 가정용 가구 품목별 판매 비율>



[자료: IBIS World(The Retail Market for Home Furniture & Bedding in the US, 2021년 4월)]

수입 시장동향 및 대한민국 수입규모

2021년 미국 가정용 가구 수입액은 90억 1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9% 증가했다. 미국 가정용 가구 수입 시장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상위 3개국이 8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전체 시장의 60%로 절대적인 1위다. 2021년 대한민국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1억 8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6%가 성장했다.

<미국 가정용 가구 수입 현황(HS code 940190 기준)>

(단위: US\$ 백만, %)

구분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9,719	7,781	9,015	100.00	100.00	100.00	15.9
1 멕시코	5,880	4,850	5,413	60.50	62.33	60.05	11.6
2 중국	1,264	918	1,164	13.01	11.80	12.92	26.8
3 캐나다	836	689	757	8.60	8.85	8.40	10.0
4 베트남	413	349	390	4.25	4.49	4.33	11.7
5 한국	156	129	188	1.60	1.65	2.09	46.3
6 독일	182	130	170	1.87	1.67	1.89	30.6
7 일본	181	109	140	1.86	1.40	1.56	29.0
8 대만	99	73	95	1.02	0.93	1.06	30.8
9 인도	61	50	90	0.63	0.64	0.99	80.5
10 영국	131	66	89	1.34	0.85	0.98	33.8

[자료: 미국 통계청]

경쟁동향

2021년 미국 가정용 가구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기록한 기업은 월마트(Walmart Inc.)로 전체 시장의 15.3%를 차지했다. 월마트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종합 유통 기업으로, 2021년 전체 매출은 약 194

억 달러이며, 미국 전역에 5,300개의 매장이 있고 160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해 새로운 판매 채널을 개척했다. 2위는 윌리엄소노마(Williams-Sonoma, Inc)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외에도 주방 용품과 소형 가전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총매출액은 43억 달러다. 3위는 3.2%를 기록한 타겟과 아마존이다. 타겟은 종합 유통 기업으로 지난 한해 4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전국에 약 2,000개의 매장이 있으며, 51개의 유통 센터를 두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 앞으로 가면 2시간 이내 준비해 트렁크에 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동 3위를 기록한 아마존은 미국 내 이커머스 최대 강자로 가구 부분에서 웨이페어, 오버스톡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 5위는 이케아로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MZ 세대들이 많이 찾고 있다.

<미국 가정용 가구 경쟁 동향>



Source: IBISWorld, The Retail Market for Home Furniture & Bed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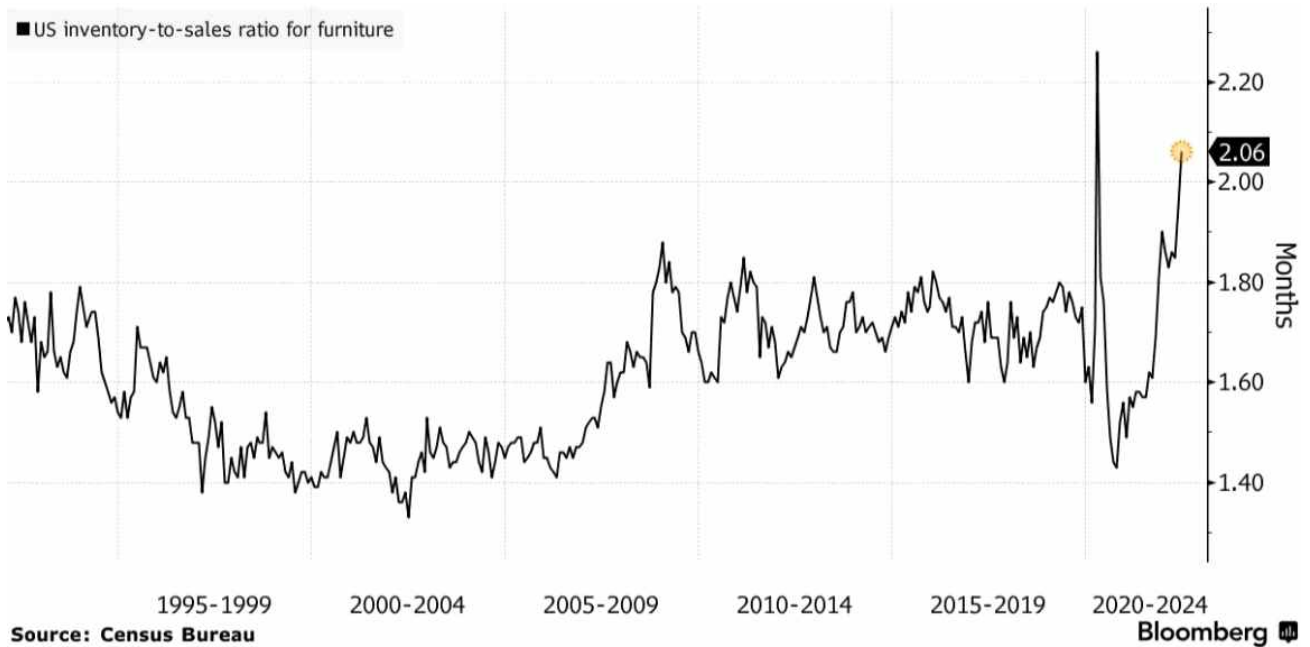
[자료: IBIS world, The retail market for home furniture and bedding]

유통구조

IBIS 월드는 가구 시장의 온라인 확대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가구의 특성상 제품 크기가 크고 무거워 배송이 타 상품군에 비해 쉽지 않으며, 한번 구매 시 반품이 어렵다는 점에서 온라인 판매가 그동안 활성화되자 못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고,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됐으며, 부피가 큰 물건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했으며, 전자 지갑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가구 시장도 이커머스가 확대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미국 전체 가구 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가구 재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가구 도매 매출이 2.9% 감소한 반면, 재고는 2.6%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재고량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급격한 물가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가구 재고 현황(2022년 6월)>



[자료: 미 상무부, 이미지: 블룸버그]

이튼 앨런의 캐스와리 대표는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이튼 앨런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가구의 비율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해 놓은 물량으로 주문 수량을 생산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부족한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개월 내로 공급망 병목 현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율 및 규제, 인증

가정용 가구-의자(HS code 490190 기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소비자 안전법(Consumer Safety Act)에 따라 사고 감소 목적으로 안전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가구는 CPSC의 안전기준 및 테스트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구 제품 관련 CPSC의 안전기준 페이지는 [링크](#)와 같다. 또한, 목재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에 따라 환경청(EPA)이 규정하는 포름알데히드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배출 규제 페이지는 [링크](#)와 같다.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소비자 시장의 트렌드는 팬데믹 이후 크게 바뀌었다. 가구 시장 역시 소비자 시장의 변동에 따라 이커머스 채널이 확대되고, MZ 세대의 구매력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이함에 따라 큰 폭으로 성장했다가 2022년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가구 시장도 더불어 축소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301조 대중 무역 제제로 일부 가정용 가구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 기업은 이를 유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자료: CNBC, 블룸버그, 미국 통계청, 미국 상무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미국 환경보호청, IBIS World, 월마트, 타겟, 아마존 홈페이지,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7. 독일 자전거 시장 동향

- 2021년 독일 자전거 역대 최고 총매출액(약 65억 6000만 유로) 기록
- 자전거의 전기화, 고급화 트렌드와 함께 안전성 강화에도 큰 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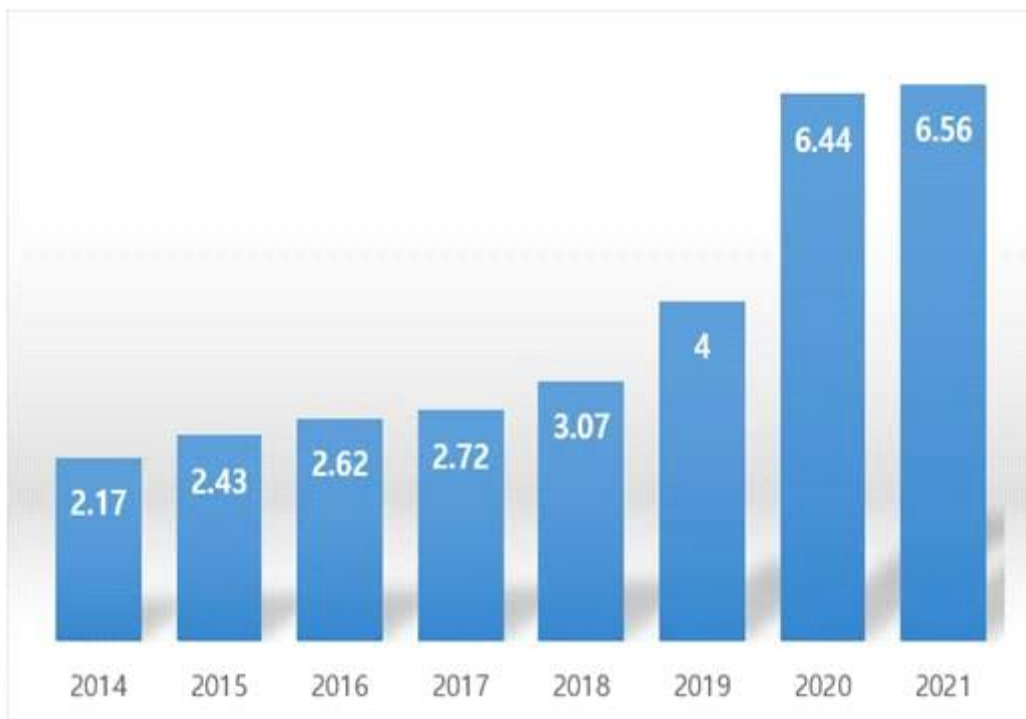
상품명 및 HS Code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HS code: 871200)

시장동향

2014년~2021년까지 독일의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약 65억 6000만 유로로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2014년~2021년 독일의 자전거 매출액>
(단위: 10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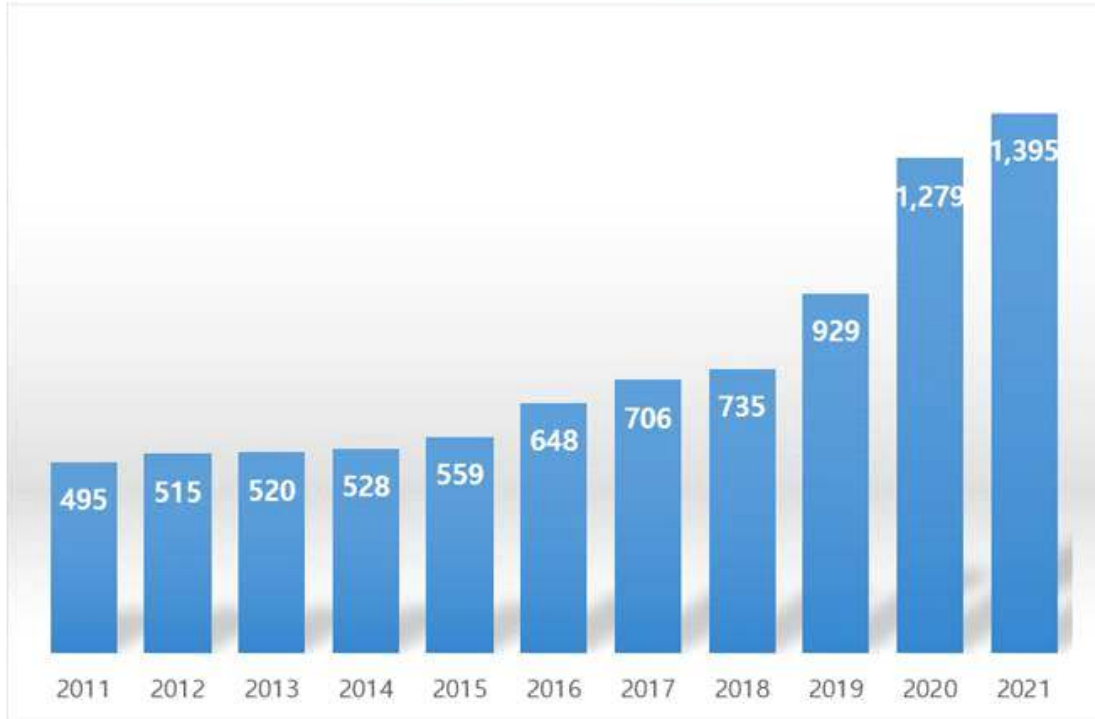


주: 전기자전거 포함

[자료: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2021년 독일의 자전거 1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1,395유로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 인상된 가격이며,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곱절이다. 독일의 자전거 1대당 평균 가격의 급상승 원인은 전기 자전거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증가이며, 이외에도 자전거 기술개발에 따른 고급화와 안전화(안정성 강화) 트렌드 또한 주요 가격상승 이유로 분석된다.

<2011년~2021년 독일 자전거 1대당 평균 판매 가격>
(단위: 유로)



주: 전기자전거 포함

[자료: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독일 일반자전거 총판매 수는 약 270만 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283만 대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6만 대로 전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국내 생산은 90만 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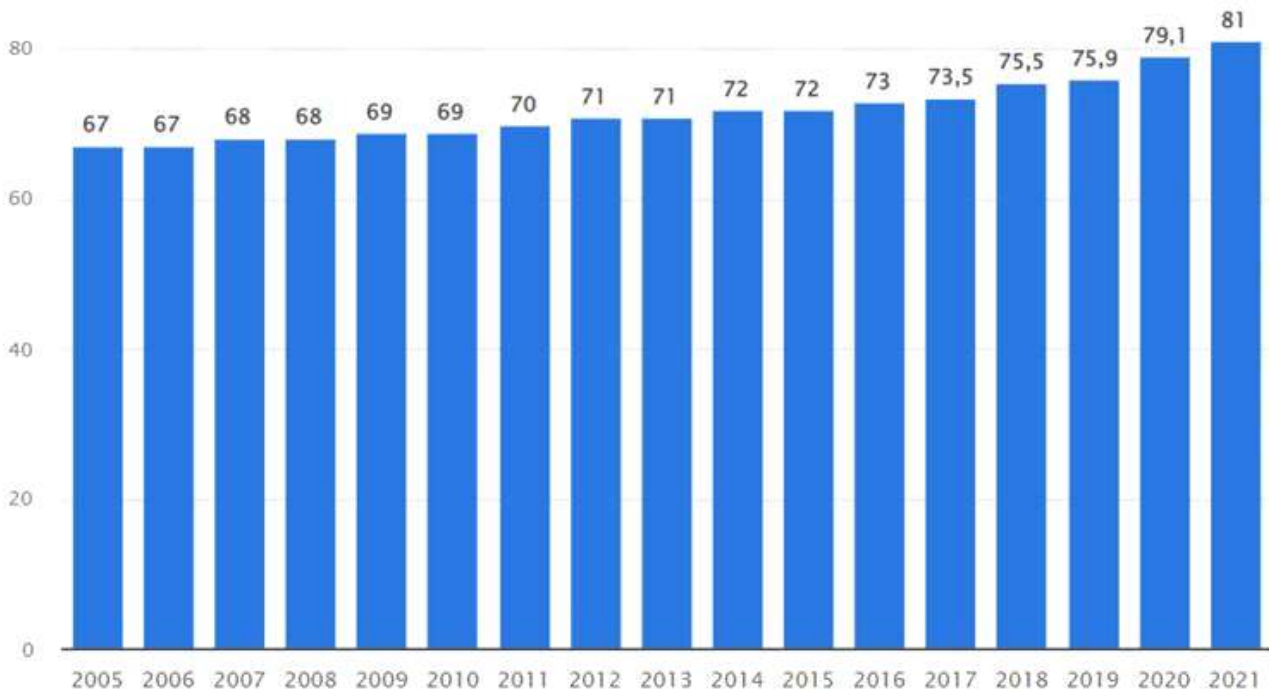
<독일 자전거 산업 주요 정보>
(단위: 1,000대, %)

구분	종류	2019년	2020년	2021년	2021/2020년 증가율
판매	일반자전거	2,950	3,090	2,700	-13
	전기자전거	1,360	1,950	2,000	3
수입	일반자전거	2,920	2,690	2,830	5
	전기자전거	1,000	1,040	1,310	26
수출	일반자전거	920	960	960	0
	전기자전거	530	610	610	0
생산	일반자전거	900	800	900	13
	전기자전거	1,000	1,300	1,400	8

[자료: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반면, 일반 자전거의 총 판매 수 감소에도 전기자전거 판매 수는 증가, 2021년 독일의 자전거 수는 약 8,100만대로 2005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2021년 독일 자전거 수>
(단위: 100만 대)



주: 전기자전거 포함
[자료: Statista]

수입 동향

HS 코드 871200 기준 독일 자전거 수입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4%, 3.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약 9억1,821만 달러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HS 코드 871200 기준 독일 자전거 수입 시장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천 달러, %)

2019		2020		2021	
수입 규모	증가율	수입 규모	증가율	수입 규모	증가율
798,963	2.4	826,111	3.4	918,212	11.1

[자료: Global Trade Atlas]

HS 코드 871200 기준 독일 자전거 2021년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은 캄보디아(점유율 17.5%), 네덜란드(15.8%), 오스트리아(12.1%), 방글라데시(6.7%), 포르투갈(6.1%) 등으로 캄보디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4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를 제외하면 주로 유럽 권역에서 수입되고 있다. 4위를 차지한 방글라데시는 78.5%의 높은 증가율로 눈에 띄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HS code 871200 독일 자전거 수입 규모>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수입 규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증감률 2021/2020
	전체	798,963	826,111	918,212	100	100	100	11.1
1	캄보디아	144,824	138,209	160,585	18.1	16.7	17.5	16.2
2	네덜란드	120,840	126,040	144,730	15.1	15.3	15.8	14.8
3	오스트리아	86,919	107,246	111,489	10.9	13.0	12.1	4.0
4	방글라데시	30,288	34,572	61,723	3.8	4.2	6.7	78.5
5	포르투갈	34,528	48,041	56,202	4.3	5.8	6.1	17.0
6	불가리아	70,280	53,112	53,090	8.8	6.4	5.8	0
7	폴란드	66,408	57,524	47,129	8.3	7.0	5.1	-18.1
8	벨기에	43,223	55,351	45,267	5.4	6.7	4.9	-18.2
9	리투아니아	18,366	21,902	30,890	2.3	2.6	3.4	41.0
10	이탈리아	20,771	24,642	27,180	2.6	3.0	3.0	10.3
36	한국	9	1	175	0	0	0	17,400

[자료: GTA (2022.07.19 집계 기준 최신 수치)]

대한국 수입 규모 및 동향

HS 코드 871200 기준 2021년도 대 한국 수입 규모는 약 17만 5,000 USD(점유율 0.02%)로 눈에 띄는 큰 성장을 기록했다. 비록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나 급격한 성장세에 힘입어 앞으로 미래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한국산 자전거는 주로 BtoB 거래로, 독일 유통기업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어 업체별 생산 규모 및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월 13일~17일까지 열린 유로바이크(Eurobike) 2022 전시회에는 약 10개 사의 우리 자전거 제조사와 부품사가 한국관을 통해 참가하여 우수한 우리 제품을 선보였다. 우리 자전거 제조사들은 국제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유럽 시장 진출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로바이크 2022' 전시회에 선보인 우리 기업 제품 사진>



(주) 카나프 / 제품명: 체테크 '에어 스페셜' 접이식 자전거

[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직접 촬영]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독일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이데아로(Idealo)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독일에서는 자전거 브랜드 중 독일 브랜드인 Cube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브랜드들이 소비자 선호가 높은 편이다.

트레킹 자전거 소비자 브랜드 선호 1위와 2위는 독일 브랜드인 Cube(45.7%)와 Pegasus(11.5%)이며 3위는 오스트리아의 KTM(6.8%) 순이다.

산악자전거는 독일의 Cube (52.2%), Ghost(7.9%)와 미국 브랜드인 Specialized(7%) 순이다.

시티바이크는 독일 브랜드인 Cube(20.8%)와 KS(14.9%), 네덜란드 브랜드인 Gazelle(14.7%) 순으로 인기가 높다.

<2020년 독일 자전거 소비자 브랜드 선호 순위>


(단위: %)





순위	트레킹 자전거		산악자전거		시티바이크	
	브랜드	선호율	브랜드	선호율	브랜드	선호율
1	Cube (독일)	45.7	Cube (독일)	52.2	Cube (독일)	20.8
2	Pegasus (독일)	11.5	Ghost (독일)	7.9	KS (독일)	14.9
3	KTM (오스트리아)	6.8	Specialized (미국)	7	Gazelle (네덜란드)	14.7
4	Kalkhoff (독일)	6.6	Trek (미국)	6.1	Prophete (독일)	13.1
5	Prophete (독일)	4.7	KS (독일)	6	Hawk (독일)	6.7

주: 독일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이데아로(Idealo)의 소비자 행태 분석, 브랜드 선호 자료

[자료: Statista (2022년 2월)]

<독일에서 인기 판매 중인 자전거>

제품 사진	제품 정보
	<p>제조사명: Pending System GmbH & Co. KG (독일) 브랜드명: Cube 모델명: Cube Aim SL graphite'n'metal 종류: 산악자전거 가격: 749 EUR</p>

	<p>제조사명: Bergsteiger Produkte GmbH (독일) 브랜드명: Bergsteiger 모델명: Bergsteiger Kodiak 종류: 산악자전거 가격: 299.90 EUR</p>
	<p>제조사명: Licorne Bike GmbH (독일) 브랜드명: Licorne 모델명: Licorne Bike Strong 2D Premium Mountainbike 종류: 산악자전거 가격: 279.90 EUR</p>
	<p>제조사명: Pentagon Sales GmbH (독일) 브랜드명: Galano 모델명: Galano Giro D'Italia 종류: 경주용자전거 가격: 329 EUR</p>
	<p>제조사명: Schalow & Kroh GmbH (독일) 브랜드명: KS Cycling 모델명: KS Cycling Montreal 종류: 여성용 트레킹자전거 가격: 320.99 EUR</p>

[자료: <https://www.vergleich.org/제조사 홈페이지 및 아마존>]

제품의 품질을 비교 평가하는 독일 최고 권위의 소비자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Stiftung Warentest)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전기자전거 부문에서 KTM(오스트리아)의 모델 'Macina Aera 671 LFC'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는 Simplon(오스트리아)의 모델 'Kagu Bosch CX 275 TR', 3위는 Specialized(미국)의 모델 'Turbo Tero 4.0 Step-Through EQ' 순이다. 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와 미국산 전기자전거 모델이 품질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자전거 품질 비교 테스트 결과>

순위	제조사 브랜드	모델	평균 가격
1	KTM(오스트리아)	Macina Aera 671 LFC	4,200유로
2	Simplon(오스트리아)	Kagu Bosch CX 275 TR	5,250유로
3	Specialized(미국)	Turbo Tero 4.0 Step-Through EQ	5,100유로
4	Stevens(독일)	E-Universe 6.5 FEQ	3,800유로
5	Centurion(독일)	Country R960i	3,800유로
6	Flyer(스위스)	Goroc2 2.10	5,350유로

7	Cube(독일)	Nuride Hybrid EXC 625 Allroad	3,300유로
8	Corratec(독일)	MTC 12S	3,600유로
9	Kalkhoff(독일)	Entice 5.B Advance+	4,550유로

[자료: Stiftung Warentest (2022년 6월)]

유통구조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자전거 판매는 주로 자전거 전문점(76%)에서 이뤄졌다. 그중 자전거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는 3%이며, 73%는 오프라인 판매이다. 이처럼 전문 매장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품질과 상담 서비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유통은 20%로 전년보다 감소세이며 나머지 4%는 하이퍼마켓, 철물점, 잡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2021년 독일 자전거 소매 유통 구조>
(단위: %)



주: 전기자전거 포함

[자료: Statista]

관세율 및 수입 규제

한-EU FTA 체결로 독일 내 자전거 수입 관세율은 0%이다. 단, 관세청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건당 6000유로 이상이면,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EU가 정해 놓은 전기자전거 안전규격인 EN15194(Electrically Power Assisted Cycles)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독일에서 전기 자전거는 CE 인증이 필요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CE 인증이 필수는 아니다.

시사점

독일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는 동시에 개인 이동 수단인 자전거 붐이 이미 한 번 일어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자전거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평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독일에서는 자전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향되고 있다. 자전거의 고급화와 안전화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독일 시장을 확장해 나갈 좋은 시기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자전거 전시회인, 유로바이크 2023'를 소개한다.

<2023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로바이크 2023 전시 개요>

전시회명(현지어 명)	EUROBIKE 2023
전시회명(한국어)	유로자전거 전시회 2023
전시 품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내비게이션, 자전거 부품, 헬멧, 선글라스, 장갑 등 기타 액세서리
개최국가/도시/개최 주기	독일/프랑크푸르트/매년
규모(참가업체 수)	1,500개 기업, 105개국, 방문객 수 약 6만 명 (2022년 기준)
개최 기간(2023년)	2023.6.21~6.25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향후 일정 변동 있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s://www.eurobike.com/en/

[자료: 유로바이크 홈페이지]

자료: Statista, Global Trade Atlas, Stiftung Warentest, 독일 자전거 산업 협회(ZIV), 유로바이크 홈페이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 동향

-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수입제품의 60% 이상은 중국산
- LED 조명 수출 시 에너지 라벨 인증 필수

상품명 및 HS Code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의 HS Code는 제8539호* 또는 제9405호**로 구분된다.

- * HS Code 제8539호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나 석영으로 만든 용기로 구성된 전구는 그 속에는 전기적 에너지를 광선(적외선이나 자외선을 포함한다)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들어 있다. 이 호에는 특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램프를 포함한다(휴대용 방전램프를 포함한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HS Code 제9405호**는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는 램프홀더·스위치·플렉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세부 HS Code>

HS Code	상품명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22-93	가정 조명을 위한, 기타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0-20	작업실을 위해 점등되기
9405.10-91	스포트라이트
9405.10-92	형광등과 램프
9405.10-99	기타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40-60	기타 외부 제 유형
9405.40-9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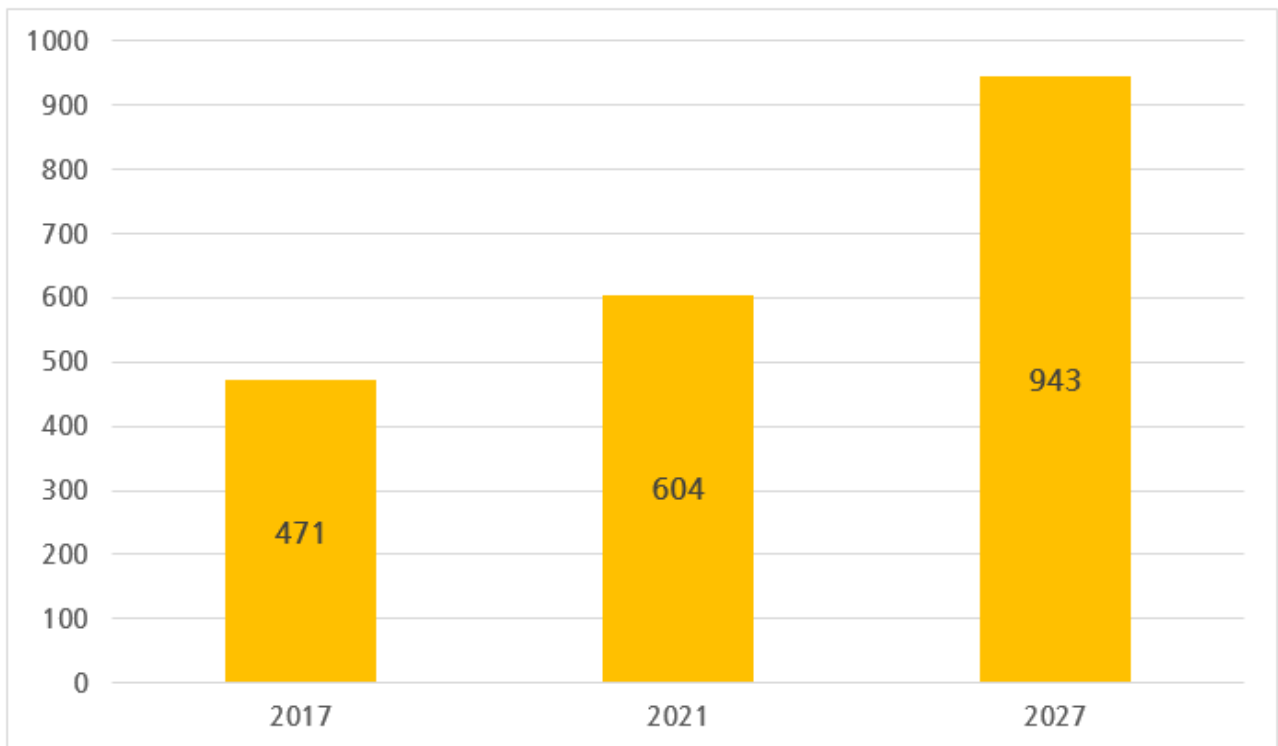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관세법령정보포털]

시장동향

IMARC Group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의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8% 증가한 약 6억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IMARC Group은 2027년까지 베트남의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은 56% 증가한 9억4,3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베트남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LED 조명이다. LED 조명은 낮은 전력 소모량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열 발생이 미미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최근 트렌드 친환경에도 부합하여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LED 조명 외 타 조명의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베트남 조명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경기 확대, 도시화 가속, 스마트시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1~2027년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판매시장 매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ARC Group]

수입 규모

2021년 HS Code 제8539호의 베트남 총 수입 규모는 약 3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국가 중 5위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1억1,430만 달러 수입액으로 중국이 수입국 1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818만 달러 수입액을 기록한 한국, 다음으로 3위, 4위는 일본과 대만이 차지했다.

<2019~2021년 HS Code 제8539호의 국가별 3개년 수입동향 및 점유율>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	중국	74,226	94,577	114,305	61.04	72.47	74.37

2	한국	13,636	8,340	8,180	11.21	6.39	5.32
3	일본	12,238	8,142	7,657	10.06	6.24	4.98
4	대만	6,684	1,381	5,570	5.50	1.06	3.62
5	베트남	1,817	7,372	3,596	1.49	5.56	2.34
총계		121,612	130,508	153,688	100.00	100.00	100.00

[자료: IHS Markit]

HS Code 제9405.40호에 속하는 품목 또한 최대 수입국은 1억1,381만 달러 규모의 중국이 차지했다. IHS Markit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HS Code류의 6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세부 분류로는 전구, 튜브 조명, 패널 조명, 스트리트 라이트, 다운라이트, 플러드라이트 등이다. 2020년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인 국경 폐쇄, 강력한 봉쇄 정책 시행으로 전년도인 2019년 대비 대다수 품목의 수입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면서 경기 확대, 도시화 가속, 스마트시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HS Code 제9405.40호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1년 HS Code 제9405.40호의 국가별 3개년 수입동향 및 점유율>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1	중국	95,454	108,240	113,815	57.56	65.72	61.15
2	일본	14,973	13,764	20,119	9.03	8.36	10.81
3	베트남	12,886	10,738	12,343	7.77	6.52	6.63
4	한국	10,252	7,591	8,707	6.18	4.61	4.68
5	이탈리아	7,240	3,365	5,988	4.37	2.04	3.22
총계		165,837	164,709	186,134	100.00	100.00	100.00

[자료: IHS Markit]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의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ushman & Wakefield(CWK)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5~40%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제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는 조명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오염물질 방출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전구를 개발 및 제조 중이다. 이 중 베트남을 대표하는 LED 조명 업체는 디엔 광(Dien Quang)과 랑동(Rang Dong)이 있다. 또한 디엔광과 랑동은 조명연구개발센터(LRDC)를 설립하여 LED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주요 외국기업은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 독일의 오스람(Osram), 미국의 크리(Cree), 일본의 니콘(Nikon)과 니치아(Nichia) 등이 있다.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브랜드>

회사명 및 로고	제품 이미지	비고
Dien Quang Lamp J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dienquang.com ○ 인증서: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ISO 9001:2015, The CE safety certification of EU, Vietnamese high

		<p>quality products cert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제조, 하드웨어 연구 및 개발, 판매, 수출, 조명 솔루션 컨설팅, 관리 ○ 주요 품목: LED 조명, 형광등, 슬림 형광등, 전구, 식탁용 조명, 인테리어 조명 ○ 수출 국가: 30개
<p>Rang Dong Light Source and Vacuum Flask JS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rangdong.com.vn ○ 인증서: KC Certification ○ 업종: 제조, 조명 연구 및 개발, 녹색 조명 솔루션 제공 ○ 주요 품목: 조명, 보온병, LED 드라이버 및 모듈, LED 조명기구, LED (벌브, 다운라이트, 튜브형, 패널) ○ 수출 국가: 36개
<p>Fawookidi LED Lighting Technology., JS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fawookidi.com ○ 인증서: N/A ○ 업종: 제조, 조명 연구 및 개발 ○ 주요 품목: 건축물 조명, 친환경 및 절약적인 전등 ○ 수출 국가: N/A
<p>Duhal Lighting Fitting Co. Lt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duhal.com.vn ○ 인증서: ISO 9001:2015, TCVN 8781:2011, IEC 62031: 2008, IEC / PAS 62717:2011, IEC 62321:2013, EN 60598-2-2:2012 ○ 업종: 제조 ○ 주요 품목: 사무실 조명, 장식 조명, 산업용 조명, 실내·실외 조명, 특정 기능 조명 ○ 수출 국가: 아세안 국가, 일본, 한국, 중동, 미국, 아프리카
<p>Vinaled Corpo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www.vinaled.com ○ 인증서: ISO 9001:2015, TCVN 10885-2-1:2015/ (IEC 62722-2-1:2014) ○ 업종: 제조, 운영 ○ 주요 품목: 실내·실외 LED 전등, 전등 부

		<p>품(어댑터, 센서), 파워 서플라이 ○ 수출 국가: N/A - 베트남 시장</p>
--	---	--

[자료: 각사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유통구조

베트남 내 제조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후 자체 유통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을 하거나 혹은 유통 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소매유통채널에 제품을 공급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독점 계약을 선호하는 베트남 바이어 특성상 현지 수입업자에게 독점 유통권을 줌으로써 현지 바이어의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베트남 지역별로 별도의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스마트 시티, 병원, 공공건물 등 프로젝트용 LED 조명 제품은 입찰을 거쳐 제품을 선정하나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이 고려된다.

<유통구조>



[자료: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관세율·인증

<베트남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비교>

HS Code	상품명	MFN (특혜세율)	AK FTA (한-아세안)	VK FTA (한-베)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 (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LED)램프	-	-	-
8539.22-93	가정 조명을 위한, 기타	15%	5%	5%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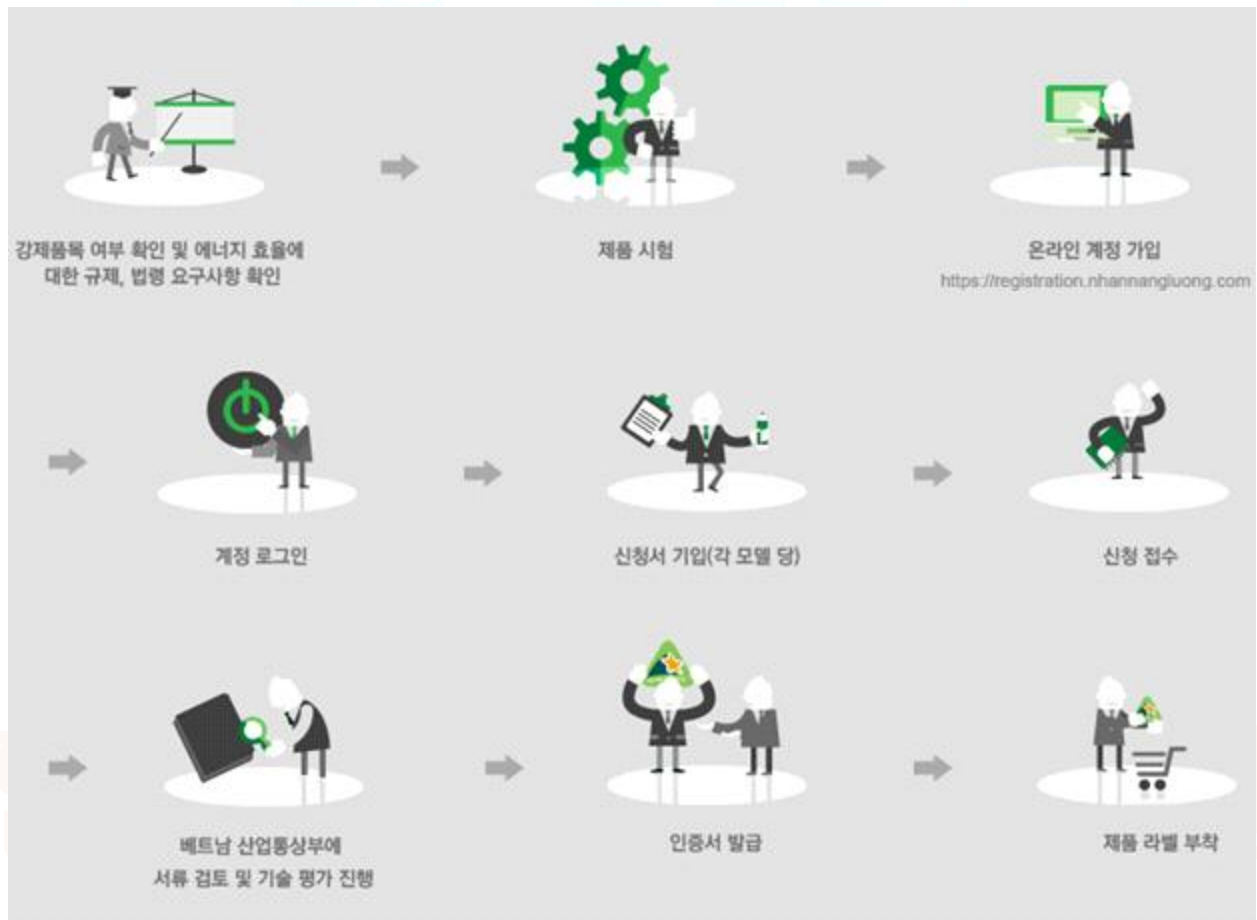
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0-20	작업실을 위해 점등되기	0%	0%	0%
9405.10-91	스포트라이트	5%	0%	0%
9405.10-92	형광등과 램프	20%	0%	0%
9405.10-99	기타	30%	0%	0%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 책상, 침대, 마루스탠드 램프	-	-	-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	-
9405.40-60	기타 외부 제 유형	20%	0%	0%
9405.40-99	기타	10%	0%	0%

[자료: 베트남 관세법령정보포털]

인증 절차


2020년 1월 1일 시행령 04/2017/QĐ-TTg에 따라 LED 조명은 반드시 에너지 라벨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담당하며 에너지 효율 표준 설정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가 담당한다. 에너지 라벨 발급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에너지 라벨 인증 절차>



[자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ED 조명 에너지라벨 인증>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rcular 36/2016/TT-BCT(2016년 12월 28일 공표) - Decision 04/2017/QD-TTg(2017년 3월 9일 공표) - Decision 4889/QD-BCT(2018년 12월 27일 공표)
에너지 라벨 마크	 <p>라벨명 : Endorsement energy label</p>
도입일자	2020년 1월 1일부 시행
베트남표준규정 (TCV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CVN 1184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전구, LED 조명기구, LED 모듈 테스트 방법 명시 ② TCVN 10885-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조명기구에 대한 요구 사항 명시 ③ TCVN 11844: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전구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규정 ④ TCVN 878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모듈 안전에 관한 규정 ⑤ TCVN 8782:2011, TCVN 8783: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램프 안정기 안전에 관한 규정
에너지 라벨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에너지라벨 신청서(기업 정보) ② 에너지라벨 등록을 위한 LED 제품 정보(모델명, 브랜드, 사양 등) ③ 에너지 라벨 상의 필요 정보 : 모델명, 생산지, 제품 사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3개 양식 서류는 Decision 4889/QD-BCT에서 확인 가능 ④ 베트남 시험기관(예: QUATEST 3)의 시험 인증서 원본 혹은 외국시험기관 시험인증서 원본
인증기관 및 시행부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개발국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84-24-2220-2358 - 팩스 : +84-24-2220-2525 - 이메일 : KimPH@moit.gov.vn (Mr. Phuong Hoang Kim)
관련 홈페이지	http://vneec.gov.vn/ (베트남 에너지효율프로그램) www.moit.gov.v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자료: 베트남 법률 도서관,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시행령 39/2018/TT-BTC 제1조 5조항에 따른 전등 수입 절차 시 필요한 서류>

- 인보이스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신고서 (Import license)

[자료: 베트남 법률 도서관]

시사점

베트남은 현재 경기 확대, 도시화 가속, 스마트시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 인프라 산업 규모는 약 47억5,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10억4,4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추세에 따라 도로용 조명, 가로등에 대한 수요도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베트남 관세법령정보포털, 베트남 산업무역부, IMARC Group, IHS Markit, 각사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TRA 하노이무역관,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